

제5회 광주일보문학상 김 옥 애 씨 인터뷰

“인간과 자연의 교감 표현해보고 싶었다”

“고향(강진)을 주제로 한 작품에 관심이 많아요. 지역의 설화를 바탕으로 한 환상적인 동화를 쓰고 싶습니다.”

단편동화 ‘늦둥이’로 ‘제5회 광주일보문학상’을 수상한 김옥애(64)씨는 수상 소식을 듣고 한동안 멍 했으며 “참여하는 데 의미를 뒀는데 큰 상까지 받게 돼 너무 기쁘고 권위 있는 상인 만큼 앞으로 글쓰기 인생의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씨는 이어 “작품을 낼 때마다 심사위원이 나 주위 사람들이 내 작품을 어떻게 평가해줄까 긴장되고 초조하다”며 “좋은 평가를 해준 심사위원에게 감사하며 영광으로 생각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1975년 단편동화 ‘우물가를 땀도는 아이들’로 옛 전남일보(광주일보 전신) 신춘문예에 당선된 김씨는 1999년까지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며 글을 써오다 명예퇴직하고 지금은 동화 창작에만 전념하고 있는 전업작가다.

수상작 ‘늦둥이’는 늦게 꽃을 피우고 겨우 열매를 맺은 사과나무와 이 사과나무를 애지중지 돌보는 할아버지 이야기다.

작가가 10여년 전 배농원에 갔다가 때를 잊고 뒤늦게 큰 배꽃을 보며 구상했다. 이 작품은 작가가 애착을 갖고 있는 소중한 것들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우고 타인도 이를 인정해주

“쓰면 쓸수록 더욱 어렵게 느껴지는게 동화 권위있는 상 받아 글쓰기 인생 자양분 될 것”

고 함께해야한다는 주제의식을 담고 있다.

특히 김씨는 “주제도 주제지만 할아버지와 사과나무, 모퉁이 파는 젊은 남자와 꽃가게 아줌마 등을 통해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의 교감을 세밀하게 표현해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강진에서 태어난 김씨가 본격적으로 글쓰기를 시작한 건 29살 때. 소설을 쓰고 싶어서 글기야 4년 뒤엔 아줌마·선생님 작가로 중앙문단의 신춘문예에 다시 당선되면서 두각을 나타냈다.

“그땐 지방서 큰 인물 났다고 칭찬이 자자했다구.”(웃음)

그 뒤 본격적인 동화 쓰기를 시작. 동화집 ‘이상한 안경’ ‘은봉어를 보았니’ 등과 장편동화 ‘별이된 도깨비 누나’를 냈고 2002년에는 ‘들고양이 노이’로 제12회 한국아동문학상을 수상하며 실력을 인정받았다.

얼마 전 ‘정자’를 소재로 한 작품을 탈고했다. 김씨는 지난 여름 강진군이 주관한 고려청자 백길 수송 재현 온누리호 항해에도 함께

했다고 한다.

그녀는 현장을 찾아 소재를 구하는 축에 속하는 작가라고 말한다. 현장에서의 체험을 통해 글을 완성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기 때문이다. ‘정자’를 소재로 한 책은 내년 출간될 예정이다.

강진의 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를 구상 중에 있다는 김씨는 요즘에도 일주일에 한두 차례 고향을 찾아 취재하느라 분주하다.

“쓰면 쓸수록 더욱 절실하게 느끼는 것이지만 동화 쓰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나 현장을 뛰어다니고 부대끼며 소재거리를 찾아다니는 순간만큼은 너무 행복합니다. 또 뛰어다닐 수 있도록 건강하니 감사할 따름이구요.”

마지막으로 김씨는 “요즘 기성작가들의 작품들을 보면 작은 것을 과대포장하고 마치 자랑이라도 하듯 작품을 남발하는 것 같다”면서 “생활동화를 쓰더라도 리얼리티와 동화 본연의 환상이라는 요소가 조화된 진정성이 동화를 썼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사진=나영주기자 mjna@kwangju.co.kr



■ 부문별 심사평

올해 광주일보문학상 심사에 오른 작품 편수는 총 33편으로 작년에 비해 다소 늘었다. 특히 동화 편수 증가가 눈에 띄었다. 5회를 이어 온 만큼 작품 편수도 늘고 수준도 좋아져 권위 있는 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동화=이번 동화에 대한 심사 대상 편수는 11편이었다. 이 가운데 ‘뿌지직 뽕!’ ‘점심 먹는 물고기’ ‘늦둥이’ 등이 후보작으로 거론되었다. 3편 모두 작가가 타 장르 창작과 결합하지 않고 오직 동화만을 쓰는 작가라는 공통점이 있었다. ‘뿌지직 뽕’은 구성, 갈등 반전 등의 요소를 갖추고 있었으나 전통 설화를 내용으로 다루어 신선도는 좀 떨어지는 느낌이 있었다. ‘점심 먹는 물고기’는 결식아동에 대한 할아버지의 관심이 주안을 두어 나눔의 정을 묘사한 사회적 배려의 주제를 다루었으나 평이한 구성이라는 단점을 보였다. ‘늦둥이’는 구성, 동심, 갈등, 결말의 시점이 비교적 잘

수준높은 소설 많아 수상작 ‘늦둥이’와 경합

맞추어져 있었고, 늦둥이 사과나무를 둔 할아버지의 관심과 애정이 동화의 전면에 잘 녹아 있는 좋은 작품이었다.

(노창수·광주일보신춘문예회장)

▲시, 시조, 동시=동시나 시조나 시는 같은 뿌리로서 모두 시가 되어야 한다. 동시는 ‘동심+시’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는데 동심은 곧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정서여야 하는 것이다. 시조는 ‘시조율+시’여야 하는데 시조율만 가지고는 시조라 하기 어렵다. 시또한 ‘시’라는 비교적 자유스러운 것이지만, 고도의 언어적 압축과정이 전제되지 않는 한 좋은 시라 하기 힘들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올해 공모작들 중 수상권에 들만한 시들은 안타깝게도 적었다.

(전원범·시인·광주교대 명예교수)

▲희곡=희곡 부문에는 단 한편의 공모 작

품이 있었다. 응모한 한 편의 작품도 양성애자 문제를 다각도로 다뤄보고자 하는 애초의 주제의식을 표면적인 수준에서 서술하는데 그친 단점이 올해의 광주일보문학상 수상작으로 선정하기에는 미흡했다.

(전원범·시인·광주교대 명예교수)

▲소설=소설 부문 응모 작품 수는 총 11편이었다. 그 중에서도 ‘계도포’ ‘세기말, 길 위에서’, ‘비밀의 화원’이 올해 수상작으로 거론될 만했다.

수상작으로 하등 모자람이 없었고, 그래서 동화 부문의 ‘늦둥이’와 함께 긴 시간 수상 여부를 두고 경합을 벌였다. 그러나 그간 광주일보문학상 수상작이 소설 부문에 편향되어 있었다는 점, ‘늦둥이’의 성취가 여느 소설 작품 못지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 수상작으로 선정되지 못했다. 작가에게 위로의 말을 보낸다.

(김형중·문학평론가·조선대 교수)

■ 광주일보문학상은 신춘문예출신 작가 창작 지원 자리매김

지난 반세기 동안 광주·전남 작가의 등용문 역할을 해왔던 광주일보 신춘문예의 출신 작가들이 보다 왕성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광주일보가 지난 2005년 제정한 상이다.

올해 ‘제5회 광주일보문학상’에는 소설·시·동화·희곡 부문에 총 30여 편이 응모했다.

심사는 현 광주일보 신춘문예회 회장인 노창수(시인·광주시교육청 교육국장)씨와 전원범(시인·광주교대 명예교수)씨, 외부 인사로 김형중(문학평론가·조선대 교수)씨가 맡았다. 수상작 김옥애씨는 상금으로 300만 원을 받게 된다.

한국화 특장전 대상 임은미씨

광주시가 주최한 ‘2009 한국화특장전’에서 ‘흔들리는 구름’을 출품한 임은미(여·22·부산시 사상구 삼락동)씨가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다.

광주미술협회 주관으로 22일 광주 시 북구 용봉동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에서 열린 이번 심사결과 최우수상은 ‘행복한 발걸음’을 출품한 송은진씨, 우수상은 김동아, 이혜리, 손동환, 장명자, 김오근씨 등 5명이 받았다.

또 ‘가을산장’을 낸 양하영씨는 특별상을 수상했다. 대상작은 관화와 플라주 기법을 도입한 과격적인 구성 등을 높이 평가 받았다.

이번 특장전에는 광주·전남지역을 비롯해 전국에서 총 470점이 출품됐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500만원의 상



임은미 작 ‘흔들리는 구름’

금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이 수여되고,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200만원과 시상상, 우수상은 5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관련 시상식은 오는 12월4일 광주 비엔날레 전시관에서 열리며, 입상작은 12월4일~8일까지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에 전시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시립 소년소녀합창단장에 이어진씨 위촉

시립합창단장 구 천씨 유임

광주시는 20일 신임 소년소녀합창단장으로 이어진(39·광주평화방송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씨를 위촉했다. 공모를 거쳐 신임 단장으로 위촉된 이 씨는 전남대 음악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지난 1997년 창단 때부터 평화방송소년소녀합창단 지휘를 맡아왔다.

평화방송합창단과 이르고 지난해 오스트리아에서 열린 5회 세계합창 올림피아에서 ‘연출이 있는 민요 부문’ 그랑프리를 수상한 이씨는 한국합창총연합회가 수여하는 ‘올해의 지휘자상’을 받았으며 클래식 전문 프로인 광주평화방송 ‘평화음악살’ 진행도 맡고 있다.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출신이기도 한 이씨는 “참신하고 획기적인



〈이어진 단장〉 〈구 천 단장〉

프로그램을 통해 관객들에게 음악으로 감동을 선사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립합창단장으로는 구천(50)씨가 유임됐다. 총신대 교회음악과와 한양대 교육대학원을 졸업한 구 단장은 미국 웨스트민스터 코이어 칼리지 썬서 세션을 수료했다.

국립합창단에서 활동하기도 한 구 단장은 국립합창단 부지휘자, 전주시립합창단 지휘자 등을 역임했다.

/김민기기자 mekim@kwangju.co.kr

전국 그림 그리기·글짓기 대회 공모전으로

22일 강원도 평창에서 열기로 되어있던 제7회 전국 그림 그리기·글짓기 대회가 대회방식을 바꿔 공모전으로 치르기로 했다.

대회 주관사인 강원일보사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을 고려해 공모전으로 대회 방식을 바꾸고 내달

12일까지 시·산문, 그림 작품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참가 대상은 전국 초·중·고등학생이며 2018년 동계올림픽 평화 유치를 기원하는 내용이면 된다. 문의 033-258-1250.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영 / 학 / 안 / 내

영화가 좋아진다

메가박스

Table with 2 columns: Rank and Title. 1. 2012 (124), 2. 벅야행 (184), 3. 2012 (124), 4. 청담보살 (154), 5. 청담보살 (154), 6. 솔로이스트 (124), 7. 벅야행 (184), 8. 2012 (124), 9. 2012 (124)

• 어프루 주자장 이용시 2시간 30분 무료 (단, 영화 관람객에 한함) : 2시간 30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구.런던역사거리 ☎1544-0600

콜롬버스시네마

Table with 2 columns: Rank and Title. 1. 굿모닝프레지던트 (전세), 2. 킬미 (184)/펜트하우스코끼리 (184), 3. 2012 (124), 4. 2012 (124), 5. 바스터즈: 거침내석들 (184)/굿모닝프레지던트 (전세), 6. 청담보살 (154), 7. 2012 (124), 8. 집행자 (184), 9. 청담보살 (154), 10. 2012 (124)

힐트시탈 영화시탈 • 홈페이지: www.joycbc.com / 1588-7941 상무점 (상무병원과 이마트 사이) 매남점 (무역화관앞편)



1588-7941 상무점연결 병행-(1번 or 2번)→0번

하미시네마

Table with 2 columns: Rank and Title. 1. 바스터즈: 거침내석들 (184), 2. 청담보살 (154), 3. 집행자 (184), 4. 킬미 (184), 5. 청담보살 (154), 6. 펜트하우스코끼리 (184)/굿모닝프레지던트 (전세), 7. 2012 (124), 8. 2012 (124), 9. 굿모닝프레지던트 (전세), 10. 2012 (124)

• 500여대 넓은 주차장(3시간무료) • 365 매일 심야 • 아동 동선사 & OK 캐쉬백 카드 할인 혜택 • 하이수영장 289-5757 • 하이볼링장 262-0925 • 하이골프장 251-5060 • 하이담구장



고려시탈 고려극장 • www.hamichinema.co.kr / 1588-9120 전대무문 하이포포텍 ☎267-7777

씨너스전대

Table with 2 columns: Rank and Title. 1. 솔로이스트 (124), 2. 청담보살 (154), 3. 2012 (124), 4. 시간여행자의 아내 (124), 5. 굿모닝프레지던트 (전세), 6. 벅야행 (184), 7. 청담보살 (154) / 2012 (124), 8. 2012 (124)

• 매일심야 상영합니다 • ARS 전화예매 1544-0070 • 무료주차 3시간 • 이동통신사 할인혜택 • 세너스극장 사우나(오전5시~오후11시)



씩잡있는 영화상 • www.cinusa.co.kr / 1544-0070 북구보건소 건너편 ☎511-1000

제일시네마

Table with 2 columns: Rank and Title. 1. 2012 (124), 2. 2012 (124), 3. 2012 (124), 4. 청담보살 (154), 5. 굿모닝프레지던트 (전세), 6. 집행자 (184), 7. 펜트하우스코끼리 (184)

• 무료주차 3시간 • ARS 전화예매 문의 227-1960 (광주세우초 옆 호남타워주차장 - 단, 입장권 구매 고려에 한함)



세우초기점 • www.primuschema.com / www.jelcinema.co.kr • 총장동 3기 ARS 전화예매 ☎227-1960